이선국 칼럼

칼럼위원(시인, 토성면장)

소통과 신뢰가 더 필요한 세상

우리는 늘 신뢰받는 사회를 희망한다. 서로 신뢰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것이다.

신뢰의 사전적 의미는 '믿고 의지함'이다. 사회 구성원인 사람들이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사는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추구하려는 뜻으로 이해한다. 신뢰는 규범만큼 강한 규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상대의 기대를 벗어나는 행위를 억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에 의해 상대의 행위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사회학자 N.루만(Niklas Luhmann)은 '신뢰는 상대의 행위를 예측할 수 있게 할뿐만 아니라 예기(豫期)할 수 있게 한다'라고 했다. 사람들은 상대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뢰가 필요한 것이다. 신뢰는 가지고 있는 많은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상대의 행동을 예기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뢰는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덕목중 하나이다.

신뢰는 매우 중요한 덕목 중 하나

신뢰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믿음이란 말도 있다.

심리학에서는 개인이 접촉하는 세계의 어떤 측면에 대한 감정과 지각, 인식, 평가, 동기, 행동경향 등의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자세를 '태도'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신념은 그 인지적인 요소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대상에 대한 신념은 다소간에 서로 관련을 가지고 전체로서의 체계를 이루나, 그 구조에서는 개인차가 있어 고도로 조직화되어 안정성 있는 신념체계의 소유자가 있는가 하면, 개개의 신념이 그다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믿음의 의미로 사용되는 신앙은 종교적 경험이나 그 밖의 초월적 존재에 대한 신념과 태도에 불과하다. 개인에게 있어 모든 신념이 똑같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중심적인 것에서부터 말초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이다. 중심적인 것일수록 잘 변화하지 않으나 한 번 변화하면 다른 신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과연 신뢰는 우리에게 어떻게 존재하고, 우리는 주변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살고 있는가?

대부분 좋은 사람들과 정감 넘치는 신뢰의 관계를 맺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불신풍조 또한 만만찮다.

금세기 우리 문명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의 메카니즘과 인간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그 일상 속에서 매사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들을 주변에서 쉽게 접하면서 우리는 실망하기도 한다.

언행이 일치하지 않으면 표리부동(表裏不同)하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속마음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우리는 '표리부동한 사람'이라고 칭한다. '입만 벙긋하면 거짓말을 한다.' 그런 사람들과 결코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없다. 설령 갖는다 해도 오래가지 못한다.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뢰할 수 없는 경우를 불신이라고 말한다. 그런 시류를 불신풍조라고 말한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옛 속담도 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감을 갖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치열한 생존경쟁을 빙자하여 본의 아니게 또는 악의적으로 교활한 자신을 감추고 남을 속이는 일,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일상의 다반사가 되었다.

소통을 통해 더 좋은 신뢰관계

개인간의 불신, 가족간의 불신, 가정에서의 불신, 직장과 사회의 불신 등등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현상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우리는 늘 범람하는 불신의 늪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불신들이 사회적 갈등과 병폐로 표출되면서 우리사회를 더 힘들게 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좋은 신뢰관계를 위해 소통이 필요하다. 소통을 통해 더 좋은 신뢰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프로야구단 SK 이만수 감독, 서강대 이덕환 교수와 민주당 안민석 의원, 서울시 박원순 시장 모두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언제나 소통을 통해 서로 믿고 의지하며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을 인정하고, 나보다도 우선 상대를 배려하는 정(情)이 넘치는 그런 따뜻한 세상을 갈망하고 있다.

특별기고

화재는 진압보다 예방이 먼저

10월 6일 발생했던 경기도 구리시 모델하우스의 화재의 원인이 방화로 밝혀졌다. 이 화재로 모델하우스가 전소됐고, 인근 비닐하우스 4동, 상가건물 등 6110㎡와 차량 6대가 타 1억15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2011년 상반기 화재발생 증가사유를 분석한 바, 화재건수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13,022건(50.9%)으로 가장 많았고, 인명피해도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349명(35.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의나 부주의, 사소한 원인으로 인한 방화 및 부주의로 많은 재산피해나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점들은 예방과 주의를 기울이면 그 만큼 피해를 줄여나갈 수가 있다.

우리 도내에는 많은 산림과 목조건축물 및 문화재들이 있다.

이러한 자원들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야한다. 방법으로 징벌과 포상을 들 수 있다.

징벌로는 방화의 처벌조건을 널리 알려 흔한 아이들의 장난이나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해야한다.

현재 방화의 처벌조건으로 형법 제 165조(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포상의 예로는 동부지방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산불신고 포상금제가 있다.

산불신고 포상금제는 산림보호법 제48조에 따라 산불방지와 산불발생 신고, 산불관련 범법자 신고 및 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도록 한 것으로 산불 조기진화와 예방, 범인 검거를 위해 산림당국이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 외에도 길거리 주민홍보나 각 학교 및 단체에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하거나 설악산국립공원 내 화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라이터 두고 올라가기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화재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화재는 진압하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미리 주의해서 막을 수 있다면 더 좋기에 국민모두가 나의 일이 라고 생각하고 예방에 앞장서야함을 명심해야 한다.

김영식 지방소방위
속초소방서 노학센터2팀장

기/고

차량 내 유아용 카시트 장착, 선택이 아닌 필수

얼마 전 나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생겼다. 바로 "엄마"라는 이름이다. 엄마가 되어 보니 그 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한 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20여만 건 중 어린이 교통사고는 1만 3000건에 달한다. 현행법상 만 6세가 안된 어린이들이 보호 장구 없이 자동차에 탑승하는 것은 불법이다.

유아용 카시트가 있는 경우 교통사고가 났을 때 다치거나 사망할 확률이 3배 이상 낮아진다.

전문가들은 유아용 카시트 없이 차량이 55km로 충돌했을 경우 아이가 3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유아용 카시트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카시트 장착 시 앞좌석 보다는 뒷좌석이 보다 안전하며 후방장착이 전방장착에 비해 사고 시 5배 이상 안전할 뿐 아니라 상해나 사망률 또한 90%나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성인에 비해 머리가 무거운 유아의 경우 상대적으로 목뼈가 약하기 때문에 후방장착을 통해 중추신경에 대한 부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서늘한 가을 날씨가 본격적인 요즘 가을 단풍을 즐기기 전에 차량 내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하자. 부모의 무책임과 안전 불감증에 의해 사랑하는 우리아이가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

고성경찰서 간성파출소 순경 고윤서